

KCCI 브리프_ESG_제33호

KCCI ESG NEWSLETTER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JAN. 2024

전문가 기고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성공조건:
'확장성, 구속성, 추가성'

ESG 주요 현안

COP28 주요 결과와 시사점

국내외 주요 ESG 뉴스

국내외 ESG 뉴스

주요 통계

ESG 금융
ESG 평가
기타 통계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 기고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성공조건: 확장성, 구속성, 추가성

김정은
이데일리 기자

“작년 7월 유력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전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에 민간 이니셔티브인 RE100의 기여도에 대해 분석한 논문 하나가 게재됐다.”

작년 7월 유력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전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에 민간 이니셔티브인 RE100의 기여도에 대해 분석한 논문 하나가 게재됐다. 2021년 기준 RE100 가입 315개사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분석한 이 논문은 RE100 기업의 해당 진출국 129개 구역에서 재생에너지 기여가 고작 1%도 채 안된다는 것을 밝혔다(Florian Egli et al. 2023). 최대 규모의 민간 이니셔티브로 꼽히는 RE100이 재생에너지 조달에 미친 영향이 생각보다 미약했던 이야기이다.

그러면 RE100은 실패한 캠페인일까. 이 논문은 RE100의 잠재적 영향력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RE100은 분명 글로벌 최대 규모 민간 이니셔티브로 확대됐고, 글로벌 기업과 각국 정부에 변화를 촉구한다. 한국도 PPA(전력구매계약)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제도 등을 만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에너지 이니셔티브의 최종 목표는 에너지 전환이다. 가입 기업이 1000개사로 늘어난다면, 재생에너지 전환에 RE100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논문은 내다봤다. 즉 민간 이니셔티브의 최우선 성공 조건은 ‘확장성’에서 찾아야 한단 이야기이다.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FE·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는 민간자율이란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 논의는 정부 주도다. 국가간 연합을 도모한다. 규제권한을 쥔 정부가 주도하는 만큼 도입 초기 제도 구축은 여타 순수 민간 이니셔티브에 비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CFE는 탄소중립을 위해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놓고 대응한 점에서 유연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효율 측면에선 아직 ‘물음표’다. 일각에선 CFE 글로벌 확산 가능성에 회의를 제기한다. 정권이 바뀌면 사그라질 것이란 냉소도 있다. 회의와 냉소는 부정적 여파를 남긴다. 민간의 규제 순응성을 낮추고, 행정력 낭비와 RE100 전환 지연이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규제 순응성의 핵심은 분명한 정치적 신호가 존재할 때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 자율 기후 이니셔티브로 국한해 보면 ‘일관된 국제 규제 환경에 편입할 것’이란 확신이 존재할 때 기업행동에 명확한 자극을 줄 수 있다(Thomas Hickmann, 2017). 즉 ‘구속성’이다. 또 민간 이니셔티브의 확장성과 구속성은 이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전환이 이행될 것이란 논리에서 도출돼야 한다. 이는 ‘추가성’이다. 이미 RE100을 달성한 구글조차도 24/7 CFE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구매해야한다. 지열, 배터리, 청정수소 등 차세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투자도 병행한다. 무탄소 전원을 사용하는 실시간 조건 때문이다.

이에 추가성 측면에서 중앙집중형 원자력을 CFE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민간이 주도해 추가성을 확보하긴 어려운 방식이기 때문이다. 중소형 원자력(SMR), 수소,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신(新)에너지 수단도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 당장 CFE가 민간 주도의 추가성을 확보할 에너지원이 마땅치 않은 형국이다. 이렇게 되면 CFE는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에서 가입 명분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이는 민간 자율이 아닌 정부간 이니셔티브로의 변질이다. CFE가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CF100을 통해 기업들이 에너지 전환에 기여가 가능한가, 24/7 CFE와 CF100이 추구하는 목표가 어떻게 다른가, 차별화 포인트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분산에너지 산업발전도 요구된다. 어떤 에너지를 사용했는지 추적·인증하는 인프라 구축은 부차적 문제다. 민간이 주도해 에너지 전환에 기여한다는 명분이 분명해야 지구적 확산의 불씨도 피어오르기 때문이다.



COP28 주요 결과와 시사점

지속가능경영원

“ UAE Consensus에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감축, 적응, 재원, 손실과 피해 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부문에서 합의하였다. ”



1. COP28 개요

유엔기후변화 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제28차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2023년 11월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주간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는 의장국(UAE)이 당초 7만여명으로 예상하였으나, 공식적으로는 97,000여명, 온라인 3,000여명, 160여개국 정상이 참여하였다.

제1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Global Stocktake)이 시행되었고, 작년 COP27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설립된 ‘손실과 피해(Loss & Damage)기금’의 운용을 결정하고 이례적으로 폐막식이 아닌 개막식에서 조기 합의의 조기 합의의 도출되었다. 의장국의 1억달러 공여와 주요국의 공여발표로 총 7.92억 달러를 조성하였으며, 녹색기후기금(GCF)을 포함하여 총 850억달러의 기후재원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COP28 일정 및 주요 주제

Nov 30	Opening Day	Dec 6	Multilevel Action, Urbanization and Built Environment / Transport
Dec 1	World Climate Action Summit	Dec 7	Day of Rest
Dec 2	World Climate Action Summit	Dec 8	Youth, Children, Education and Skills
Dec 3	Health / Relief, Recovery and Peace	Dec 9	Nature, Land Use, and Oceans
Dec 4	Finance / Trade / Gender Equality / Accountability	Dec 10	Food, Agriculture and Water
Dec 5	Energy and Industry / Just Transition / Indigenous Peoples	Dec 11~12	Final Negotiations

CROSS-CUTTING THEMES

Technology and Innovation	Inclusion	Frontline Communities	Finance
----------------------------------	------------------	------------------------------	----------------

• 출처 : COP 28 공식홈페이지

2. 의장국(UAE) 역할 및 주요국 성과 평가

UAE는 의장국으로서 총회 이전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등을 제안하고, 300억달러에 이르는 기후재원(ALTERRA)을 조성하는 등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달성을 위한 범세계적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노력했다.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서약, 기후-보건 선언, 농업 및 식량 기후 선언 등

ESG 주요 현안

COP28 주요 결과와 시사점



폐막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처음으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을 언급하면서 세계지도자들이 또다른 역사적 이정표에 근접했다”고 논평했고, 우르술라 폰 데 라이엔 EU집행위 의장은 “COP28 기후회의와 파리협정의 첫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성공적인 결론을 환영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COP28 회의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성공적인 회의였다는 대체적인 평가이다.

3. COP28 주요 합의 내용

<UAE 합의 주요 내용> : 표1

분야	주요 내용
GST/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로부터의 에너지 체계 전환 (transitioning away) 추진 •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 3배 증대, 연평균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phase-down) • 공정한 전환을 저해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phase-out) • 무탄소·저탄소연료 활용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제로 에너지시스템 구축에 노력 • 재생에너지, 원자력,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저탄소수소생산 등 무탄소·저탄소기술활용 가속화 • 2030년까지 메탄을 포함한 非CO₂ 배출 감소 • 무탄소·저탄소 차량의 신속한 배치 등을 통해 운송 부문 배출 감축 •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중단, 해양 및 해안 생태계 보존 및 복원 등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지구적 적응목표(GGA) 구축논의에 따라 UAE기후회복력체계도입 및 부문별, 정책주기별 목표치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문별(수자원, 식량, 보건, 생태계, 문화유산 등) 목표치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로 인한 물 부족을 줄이고 물 관련 위험에 대한 기후 탄력성 향상 * 기후탄력성을 갖춘 식량 및 농업 생산·공급·유통 달성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한 회복탄력적 의료 서비스 촉진 *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후영향 감소 노력 - 정책주기별(위험성평가-계획-이행-평가) 목표치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위험성·취약성평가) 203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및 위험도 평가 및 국가적 응계획에 반영 * (계획) 2030년까지 모든 당사국은 국가적응계획, 전략을 마련(생태계, 인간, 지역사회를 포괄) * (이행) 2030년까지 동 계획을 이행하고, 이를 통해 주요 기후위험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감소 * (모니터링 및 평가) 2030년까지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적 역량을 마련 • 측정 지표를 구체화하고 진전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2개년 작업프로그램 출범
손실과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로 파생된 개도국 피해보상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공식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의 잠정기간 동안 세계은행에서 기금 유치 - 선진국의 재원 공여를 촉구하고, 기타 당사국의 자발적 지원을 독려
재원 (이행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이후의 신규재원조성목표(NCQG)*를 2024년 말까지 수립하는 목표 재확인 및 COP29 이전 당사국 간 협상문 초안 마련 목표 • 공공자금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출처를 통한 기후자금 확대 노력 • 2025년까지 적응 분야 재정을 2019년의 2배 이상 수준으로 증대 노력· 2025년까지 기후기금 연간 1,000억 달러 규모 조성을 위해 노력
정의로운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JTWP)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사회경제적, 노동 등 분야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전환 추진 - 2026년 당사국총회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존속 여부 결정

• 자료: UNFCCC

*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 COP21(2015)에서 2025년 이전까지 개도국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감안해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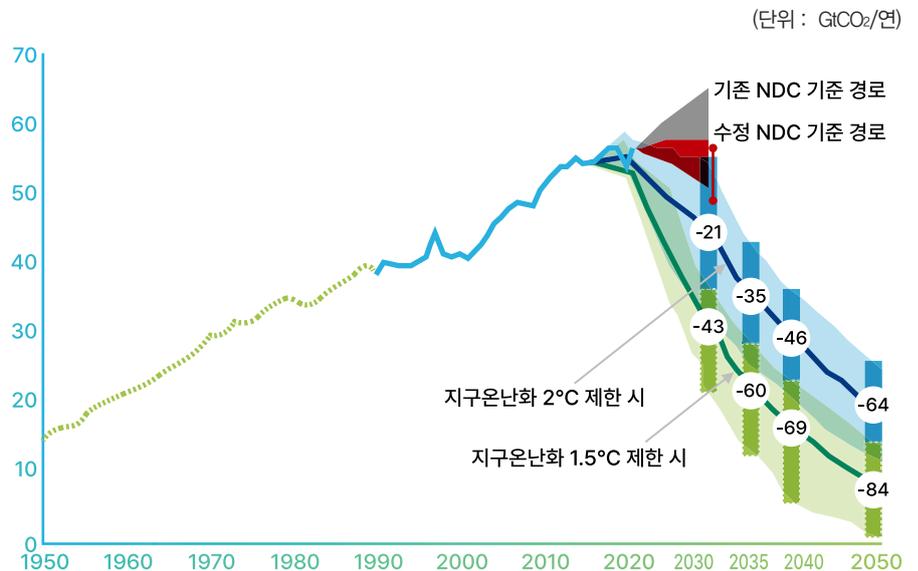
COP28
주요 결과와
시사점

3.1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Global Stocktake)

이번 총회에서는 첫 번째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와 함께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강화된 이행사항을 담은 'UAE Consensus'를 최종 합의문으로 채택했다.(표1 참조) 전지구적 이행점검은 전 세계가 파리협정 목표(산업화이전대비 1.5°C 기온 상승 제한) 달성경로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체계로 2023년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5년마다 평가기준*에 따라 전지구적 이행점검이 진행되는데, 2023년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 대다수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파리협정 목표달성에 크게 부족한 상황(현 NDC 이행에 따른 2030년 배출량 감소율 목표는 2019년 대비 감소목표 43% 대비 2% 감소)으로 분석되었다.

* 평가기준: ①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②감축노력, ③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이행의 종합적 영향, ④적응노력의 현황, ⑤기후재원 및 행동과 지원노력, ⑥장애요인 및 우수사례 등을 고려

국가별 감축목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예상 경로



- 주: 그래프내 수치는 2019년 배출량 대비 감소비율
-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 연구원

3.2 감축(Mitigation)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감축안으로 ①“화석연료로부터의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고 ②“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증대”하고, ③“전세계 연간 평균 에너지 효율2배 개선”을 추진하고, ④“무탄소·저탄소기술 활용증대” 등 감축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합의했다. 이에 2025년까지 마련되어야 하는 2035년 NDC에 동 결과를 반영하고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해 더욱 강력한 탄소감축계획을 COP30(26.11월)개최 최소9~12개월 전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35 NDC 목표향상 및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과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COP28·29·30의 3개의장국(UAE, 아제르바이잔, 브라질)이 주도하는 ‘Roadmap to Mission 1.5’을 출범할 것이며, 2026년 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 준비작업을 시작해 2028년 2차 GST를 실시할 예정이다.

COP28 주요 결과와 시사점

3.3 적응(Adaptation)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의 이행 사항도 전지구적 적응목표인 UAE기후회복력체계(UAE Framework for Climate Resilience)를 정식 채택하고 물, 식량, 건강, 생물다양성 부문 2030년까지의 부문목표치와 정책주기별(위험성 평가-계획-이행-평가)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최초로 보건 및 식량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기후 탄력적인 식량 및 농업 생산-공급-유통을 추구하고 회복탄력적 의료서비스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을 방지하는 등의 적응조치를 강화하였고, 이를 위해 부문별 정책주기별 목표지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정량화 요소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3.4 자원(Finance)

신규재원조성목표(NC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를 2024년말까지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2025년까지 기존 기후기금의 연간 1,000억 달러 규모 조성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3.5 손실과 피해(Loss & Damage)

기후변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손실과 피해’ 기금이 7.92억 달러 규모의 출연금과 함께 COP28을 통해 공식 출범하였고, COP27 이후 개최된 5차례 전환위원회에서 도출된 합의문에 따른 기금운용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선진국의 재정투입을 촉구(urge)하고, 기타 당사국은 자발적 지원을 독려(encourage)하며, 기금운용은 4년의 잠정기간 동안 세계은행에서 금융중개기금(FIF) 형태로 기금을 유지하고, 수혜자격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별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으로 하기로 하였다. UAE와 독일이 각 1억달러, 이탈리아 1억유로, 미국 1,750만 달러, 일본 1,000만 달러 등 정상회의를 통해 재원공여를 선언하였다.

3.6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JTWP, Just Transition Work Programme)에 착수해 에너지, 사회경제적, 노동력 등을 고려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4. 시사점

COP28 총회는 COP27의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큰 진전이 있었다.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은 예상을 깨는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진 반면, 화석연료로부터의 단계적 퇴출(Phase-out)은 산유국의 반대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에너지 체계 전환(Transition away)이라는 문구로 합의되기 위해서 폐막을 하루 넘기기도 했다. 또한 전지구적 이행점검(GST)를 통해 파리협약에서 약속한 국가온실 가스 감축목표(NDC)를 매 5년마다 수립, 제출,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장기적이고 전략적이며 획기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1 NDC 상향 압박으로 감축노력 강화

UAE Consensus에 “화석연료로부터의 에너지 체계 전환”이 명시됨으로써,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시동을 걸었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외에 원자력,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수송부문 감축 가속화가 예상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성실한 이행을 위해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고 평가체계 운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무)탄소 기술 개발 박차, 메탄, NF3 등 非CO₂ 분야 감축노력을 확대하고, 무(저)공해차 보급 확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파리협정 6조에 따라 기후 취약국의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활성화해야 한다.

4.2 적응

글로벌 적응목표 체계 수립과 함께 향후 글로벌 단위의 종합적인 적응방향을 제시하고 전지구적 이행점검과 연계하여 글로벌 적응 진척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개도국의 적응정책 수립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우리의 적응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는 한편, 개도국의 적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4.3 손실과 피해 대응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협약에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개도국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손실과 피해 기금을 조성하여 공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4.4 ISSB 공시기준 S1,S2 적용 준비 철저

국제회계재단(IFRS)의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 공시기준인 S1(일반적 지속가능성관련 재무공시요구안), S2(기후관련 재무정보 공시안)에 대해 주요국가의 규제당국, 140개 이상 기업, 투자자그룹, 기관투자자, 증권거래소, 다자개발은행, NGO 등이 지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2026년 이후로 연가된 국내 지속가능성 ESG 공시를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와 향후전망(2023.12.18). 한국법제연구원 주관, 대한상공회의소, (사)한국기후변화학회, (사)인구와기후, 내일, 에너지경제, (재)기후변화센터
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 연구원 COP28주요 성과 및 시사점 (TRADE BRIEF NO.21)
3. [보도자료] 제28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 폐막(외교부 기후변화 외교과)
4. 삼일회계법인 ESGNewsflash - COP28 Takeaways
5. 기후변화협약(UNFCCC) 홈페이지

E 환경



원전 4기 추가 확정...2기는 신규부지에 짓는다

국민일보 | 2024. 01. 17. <https://m.news.nate.com/view/20240117n34707?mid=m02>

IOSCO,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투명성 강화 방안 제시

ESG경제 | 2023.12.04,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337>

기업 공시 의무에 '기후'도 들어갈까...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경향신문 | 2023.12.14,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12141617001>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이 한국 기후대응에 안겨준 속제는?

경향신문 | 2023.12.18, <https://www.khan.co.kr/environment/climate/article/202312181819001>

2030년 '탄소 제로' 선박 상용화

한국경제 | 2023.12.2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971841>

'손실과피해기금 운용', 'UAE 킨센서스' 채택했으나 화석연료 전환 등 논란 여전

세계일보 | 2023.12.24,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224503606>

환경부, 2030년까지 국토 30% '국가보호지역' 지정...생태관광 활성화

뉴스핌 | 2023.12.26,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226000326>

글로벌 투자자, 국내 대기업 기후변화 대응 관심 증대

서스틴베스트 | 2023.12.29, <https://sustainvest.com/insight/esgRprt/view?cntntSeq=2418>

순환경제 조성되는 놀이터 열린다... 폐배터리도 순환자원

머니투데이 | 2023.12.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2908174274826>

유럽 '무늬만 ESG 펀드' 퇴출...화석연료株 올상

한국경제 | 2024.01.0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0429391>

까다로운 美 IRA 청정수소 보조금 기준...시선은 'CCS'로

전기신문 | 2024.01.05,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215>

PwC, "한국 CEO들 기후변화 대응 미흡"...투자 전망은 낙관

ESG경제 |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628>

기업의 재무제표만 본다고? 인적자본 공시가 온다

한국경제 | 2023.12.1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79932i>

올해 1000대기업 여성 CEO는 40명...작년보다 8명 늘었다

이투데이 | 2023.12.21, <https://www.etoday.co.kr/news/view/2314162>

AI, 골칫거리 아닌 지속가능한 세계 여는 열쇠

ESG경제 | 2023.12.22,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7>

中, 미국 기업·연구원에 제재...美 '신장 인권' 제재에 맞불

동아일보 | 2023.12.27,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1227/122789417/1>

한국은 ESG 공시 유예...美·EU는 속도 내 '비상'

서울경제 | 2023.12.25,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NF1W2JF>

ESG 의무공시 닷 올랐다...“기업 지원대책 필요”

이데일리 | 2023.12.2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0006635842784&mediaCodeNo=257>

호주, ESG 공시 의무화 법률안 공개...올 7월 시행 들어가

ESG경제 |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618>

금융위, 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시행

뉴스시스 | 2023.12.17,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5_0002560384&cID=10403&pID=15000

EU 이사회, ESG평가기관 규제안 합의...초안보다 완화된 조건 제시

임팩트온 | 2023.12.22,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10>

“은행 이사회 다양성 제고, 전문성 확보 전제 하에 이뤄져야”

SBS Biz | 2023.12.24, <https://biz.sbs.co.kr/article/20000149934>

기업 분할·합병 때 개미투자자 피해...‘이사회’에 책임 물리나.

한겨레 | 2024.01.03,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22715>

시총 200대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율 83%...전년비 6%p 상승

한스경제 | 2024.01.10,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6321>

ESG 평가에 ‘아시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이유

ESG경제 | 2024.01.14,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600>

S 사회



G 지배구조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개)

구분	'23.5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녹색채권	231	249	247	249	257	268	276	278
사회적채권	1,201	1,246	1,281	1,314	1,371	1,394	1,440	1,463
지속가능채권	290	297	292	287	294	289	280	290

(2)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잔액

(단위: 천억 원)

구분	'23.5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녹색채권	217	243	241	241	249	251	254	256
사회적채권	1,713	1,768	1,803	1,849	1,898	1,928	1,971	1,994
지속가능채권	214	217	216	209	212	207	201	203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2. ESG 평가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8	14	20	38	78	131	162

(2)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배구조보고서	76	101	213	224	231	355	380

자료: KRX ESG 포털

3. 기타 통계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수

* CF100 참여 기업 수: 143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내	-	-	-	6	14	27	36
글로벌	101	141	204	269	335	393	426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

2024년 ESG 뉴스레터 발간 주제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지속가능경영원

1월	COP28 주요 결과와 시사점
2월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주요내용과 활용
3월	ESG Digitalization과 데이터 통합관리
4월	KSSB 국내 ESG 공시제도 최종안
5월	국내기업의 ESG위원회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6월	글로벌 인적 자본 공시 현황과 대응방안
7월	EU 공급망 실사법 (CSRD) 최종안
8월	S분야 현안, 다양성.형평성.포용성 (DEI)
9월	미 SEC 기후 공시 규칙안과 영향 분석
10월	EU 순환경제 법안 동향과 대응전략
11월	해외탄소배출량 측정 현황과 과제
12월	글로벌 기업의 ESG 연결 공시 우수사례

권우혁 연구원 | E. whk@korcham.net

김예원 연구원 | E. kyw1208@korcham.net